

‘120달구벌콜센터’ 주석연휴 정상운영

9월 14일(토)~18일(수), 오전 9시~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
이용가능한 병·의원, 교통정보, 쓰레기 수거일 등 생활 정보 제공

대구광역시 ‘120달구벌콜센터’는 시민들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9월 14일(토)~18일(수)까지 주석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한다.

‘120달구벌콜센터’는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 정보에서 생활민원뿐 아니라 문화 행사까지 알짜정보를 제공한다.

최근 3년간(2020~2023) 명절 연휴기간 동안 접수된 상담민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담자료를 갖추고 있으며, 맞춤형 민원응대를 위한 상담원 특별교육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.

특히,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, 버스 노선, 무료 개방 주차장, 쓰레기 배출 및 수거일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정보는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.

또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, 전시,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도 제공한다.

연휴 기간 ‘120달구벌콜센터’는 오전 9시~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, 휴대전화(지역번호 및 국번없이 120), 문자(053-120), 24시간 상담 가능한 ‘보이는 ARS’ 등 다양한 채



널로 상담할 수 있다.

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“주석 연휴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신속한 생활정보 등을

제공하여 편안하고 풍성한 주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민원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자료제공:대구시청>

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본 적 있나요?

엄마와의 기념여행

생애 가장 특별한 여행이 찾아옵니다

CHANNEL J

푸른방송 디지털 케이블 123, 케이블 57-1



대구성서경찰서 ‘마음:잔’ 컵홀더 제작

대구성서경찰서(서장 이재욱)는 지역주민이 일상 속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관련 내용을 담은 ‘마음: 잔’ 컵홀더를 제작했다. ‘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서’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컵홀더에 QR코드를 삽입했다. 경찰에서는 지원 업체에 자체 제작한 ‘범죄 피해자 지원의 집’ 명판을 부착한다.

<자료제공:대구성서경찰서>



대구달서경찰서-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위기청소년 선도·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

대구달서경찰서(서장 오완석)는 지난 5일(목) 오전 10시 달서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(소장 양병곤)와 위기청소년 및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·보호를 위한 ‘대구달서경찰서-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’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△양 기관 간 정보공유 △위기청소년 등의 예방교육, 심리상담, 법률·경제 지원 △우범지역 합동 순찰, 캠페인, 홍보활동 등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·범죄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.

<자료제공:대구달서경찰서>